

옛날 초록동이가  
간곤<sup>흐</sup>게 사는다.  
흐<sup>르</sup>은 산에  
골체 주는 정동줄을  
걸으레 갔단  
징심밥을 먹엄더니.  
산신백관이  
“너 먹는 거 뭐냐?” 흐니.  
“좋지 못<sup>흔</sup> 수세범벅입네다.” 흐난  
“나를 조꼼 주민 먹어보겠다.” 흐연  
드리니.  
산신백관이 잡수고,  
“맛이 좋니.  
너의 사는 인간이 가민  
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싫느냐?”  
흐연,  
“좋은 음식은 먹기가  
어렵습네다마는.  
이런 음식은  
먹기가 요절<sup>흡</sup>네다.”  
“게멘, 너광 곁이 가겠다.”  
경<sup>흐</sup>난,  
그 어루신이 오란,  
고내오름 큰신머들로  
좌정<sup>흐</sup>였단.  
그 누게가  
나쁜 음식이나 존 음식이나  
잡습<sup>셍</sup> 흐는 말이 읍서,

호를 날은

백관님이 초록동일 불러서,

“아! 너의 고단 가민

이런다 호더니

무우 소식이 었다.”

초록동이가 말을 호되,

“암만 신넨들

그만이 앗아시민

누게라 뭐 잡습셍 흡네까?

무쇠쌀에 무쇠활에

이 모을 백성들에

훈대썩 쏘아봅서,

그 주손에 빙이 나고

모든 불펜이 나민

우찬흡네다.”

이젠 산신백관이

초록동이 말대로 호니,

그제사 우찬힘이 났습네다.

그영호난, 호르온,

을서님광 뱅서님이,

“산신백관님이 좋은 디

좌정했다” 호니 강 보겐, 호연

구경츠로 가고 보니

그 장소가 하두 모심에 들고

쟁길터도 좋아지고 호난

산신백관님 보고,

“나를 입참시겨 줍서.” 호난,

앞으로 입참을 시겨 주고,

서저동궁이 넘어가다가 소식 들언,

또 인칙츠록 좋댄 호연

간 보난 아닐카 좋아지니,

“나를 입참시겨 줍서.” 흐니

이번엔

서으로 입참을 시겨.

그영 흐연 이 당엔

을서님, 병서님, 서저동궁이

띠로띠로 좌정 흐니

주손들이 이 당에 가쟁 흐민

메도 잔도 지물도

훈기에 올릴지라도

그 때 입참시긴

신전님을 거느리곡

초록동이도

산신백관님을 인도시기난

이 지금도 거느려줍네다.

옛날엔 이 당 앞으론

물탕 가당은

물발 절어부난

하매 흐여사 지나가곡

흐였수다.

돛괴기 먹은 주손은

이 당에 가지 못 흐는

늙고 늙은 조상이우다.

제일 1월 14일

7월 14일,

<애월면 하가리 여무 60세 장선아님>

진성기, 『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』, 민속원, 1991, pp.596-597.